

기관돋보기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어르신 곁에서 더 가까이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청원구 대표 노인복지 거점 기관이다.
 SK하이닉스 후원으로 조성된 'ICT사랑방'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주민 주도형 돌봄사업 '우리이웃지킴이'를 운영하며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꾸준히 유지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복지관의 주요 성과와 운영 과제, 향후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전경.

'ICT사랑방' 운영으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우리이웃지킴이 통해 주민 주도 돌봄체계 구축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김혜정)은 청원구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배움터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노인복지 거점기관이다. 현재 누적 등록 회원수는 약 9000명에 달하며, 이는 청원구 내 어르신 인구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규모로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과 행사, 상담 등을 이용하기 위해 복지관을 찾고 있다.
 최근 복지관이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2025년 3월 12일 개소한 'ICT 사랑방'이다. 디지털 정보 격차가 어르신들의 일상에도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복지관은 SK하이닉스와 하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 전용 디지털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ICT 사랑방은 교육·건강·체험·소리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으며 인공지능(AI) 기기와 가상현실(VR) 장비 등 최신 기술을 어르신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ICT 해피에이징 서포터즈'가 어르신 곁에서 밀착 지원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을 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어

르신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ICT사랑방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키오스크 주문조차 어려워했지만, 서포터즈의 도움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온라인 쇼핑까지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어르신은 "세상이 너무 빨라 외로웠는데 다시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복지관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가 어르신의 자존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비결은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따뜻한 기관 분위기에 있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근 내덕생활체육공원과 새적골공원을 활용한 야외 체육 활동을 연계해 일상 속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의 또 다른 강점은 주민 주도형 정서 안전망 사업인 '우리이웃지킴이'다. 베이비부머부터 액티브 시니어까지 4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직접 살피는 돌봄 공동체로 단순한 방문 활동을 넘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심리상담 교육을 이수한 준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북이면에 홀로 거주하던 한 어르신은 지킴이들의 꾸준한 방문과 관심으로 외부 활동을 시작했고, 이제는 지킴이들과 함께 만든 작품을 마을회관에 전시할 만큼 활기를 되찾았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돌봄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복지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김혜정 관장은 "복지관이 대중교통 노선에서 멀어 접근성이 낮다 보니 개인차량 이용이 늘면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한계가 복지관 운영의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근에 내덕생활체육공원과 새적골공원이 있어 주민 건강 증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것은 강점이지만, 공원 내 노후된 운동기구로 인한 민원 증가와 관리 부담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혜정 관장은 "이용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반자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시설 환경 개선과 인력 확충,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앞으로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디지털 기반 돌봄 강화, 노년 리더십 확대,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주도형 안전망을 확대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야외 활동을 진행하며 일상 속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은 지난해 3월 어르신 전용 디지털 체험공간 'ICT사랑방'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북도, 출산·돌봄·양육 안심 패키지 가동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아이돌봄 지원 상향 등

충청북도는 14일 '출생아수 1만명 목표'를 담은 임신·출산·양육 정책 확대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2025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달성률과 출생아 수 8000명 돌파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임신·출산·양육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결혼·임신·출산·돌봄·양육 전반의 보다 촘촘한 정책을 통해 저출생 상황 속에서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동반 상승을 꾸준히 이끌어 내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건강 지원 분야에서는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 시행하고 관련 사업비도 44억원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보다 폭넓게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역시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육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계 가입 제도를 도입해 보육 현장의 안전 관리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과 취약 가정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다탈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초·중·고 가정 지원 제도 역시 도내 모든 시·군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가 일하는 기쁨 작업장에 방문해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충북,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 9곳 개소

올해부터 시군 운영 사업 전환... 경력단절 여성·청년 대상

충북도는 13일 도내 전역에 조성된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을 개소하고 2026년도 사업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5년 연말 기준 총 13개소, 16개 참여기업, 25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2026년 사업은 총 9개소, 10개 참여기업, 175명 규모로 출발하며 올해부터는 시군 운영체제로 사업을 전환해 지역 중심의 유연한 사업 추진에 나선 예정이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경력 단절과 육아, 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웠던 청년과 여성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짧고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하루 4시간 이내, 주 3~4회 근무하며 소규모 포장·조립·분류 작업과 단순 사무·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작업장

조성, 기업 맞춤형 인력 연계,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우리동네 일터'라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를 현장에 안착시켰다.
 이번 공동작업장 개소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충해 온 사업 기반이 올해에도 차질 없이 이어지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 운영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일하는 기쁨' 사업이 도(道) 주도의 시범 단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이 책임지고 키워가는 생활권 일자리로 본격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2026년 공동작업장 26개소, 500명 참여를 목표로 도민에게는 '집 가까운 일터',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제공하는 상생형 일자리 체계를 도내 전역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국지역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최대 확보

우리 기관 홍보 영상이 하루에 100회 이상 나와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우리 기관을 알려주세요

자활기업 (주)더담은프렌즈
 themorefriend@gmail.com 1588-2075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 가동

빈틈없는 통합안전망 구축... 전문가 19명 위촉

청주시는 9일 노인과 장애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협의체 출범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참석해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는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지역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청주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2026년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9일 '제1기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율리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단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 의료돌

봄 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빈틈없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172억원 투입해 노인일자리 확대

공익·역량활동·공동체사업단 등 5개 분야

음성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1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328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215개보다 2.6% 증가한 수치로, 예산 역시 전년도 161억원 대비 6.8% 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음성형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사업, 역량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음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 주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지 못하는 일자리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도모델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세력방 '이음샘터'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며 120개의 일자리를 발굴했다.

또한, '공익활동사업'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노노케어와 공공복지시설 활동

등으로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역량활동사업'은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보육시설 업무 보조, 공공전문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하며 월 60시간 근로 시 월 60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는 다.

'공동체사업단'은 노인이 직접 상품 생산과 판매,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형태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된다. 60세 이상 사업 특성에 적합한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알선형'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인처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 225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음성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등 지역 수행기관 2곳에 전담 인력 31명을 배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병헌 가족행복과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분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사용자 대상

제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제천 청풍호콜센터, 주식회사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제천시내에 서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 보행장애인 가운데 비휠체어 사용자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043-

644-5553)를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청풍호콜센터(☎043-645-1004)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1700원(5km 기준)이며, 이후 1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돼 최대 3400원까지 적용된다.

시와 협약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청풍호콜센터, 주식회사 티머니 모빌리티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단양군 노인 인구 1만명 급증, 전체인구 37.6%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등록통계' 발표

단양군은 15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복지 정책의 정밀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노인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노인등록통계'를 처음으로 작성·공개했다.

이번 통계는 충북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작성된 노인등록통계로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중장기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이 발표한 '2025년 단양군 노인등록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단양군 노인 인구는 9994명으로 전체 인구의 37.6%를 차지해 최근 5년 중 가

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고령 비중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와 생활 안정 지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인 고용률이다. 2024년 상반기 56.1%, 하반기 55.8%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단양군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사업자등록 인구도 162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65~6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은 1808명으로 여성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여건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보였다.

노인 주택 소유자는 4652명, 개인 소유 주택은 5486호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단독 소유 비율은 94.8%, 1주택 보유자는 81.6%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노인은 9952명에 달했으며, 이 중 직장가입자 비율이 50.2%로 절반을 넘어 고령층의 지속적인 사회활동과 건강 관리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충주시, 사회복지 업무 AI챗봇 개발 '주목'

방대한 복지 법령·지침 즉각 답변... 정확도 90%



충주시청 직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 실무 보조형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

충주시는 시청 공무원 학습동아리 '자비스가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형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비스는 행정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결성된 공무원 학습동아

리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행정 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첫 적용 분야로 사회복지 업무를 선정한 것은 각 사업별 지침이 350페이지를 넘고, 매년 선정 기준 변경과 법령 개정이 잦아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안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발된 챗봇은 답변 정확도가 90%에 달하며, 실제 복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도 95%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복잡하게 분산된 지침과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업무 속도와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또한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과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체계화한 'AI 챗봇 표준 기술 모달'을 수립해 사회복지 업무 외에도 다양한 행정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자비스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등록, 허가 민원 등 지침 해석이 필요한 행정 업무 전반에 활용할 AI 챗봇을 개발하고, 최신 법령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천군, 출생아 수 도내 3위·군 단위 1위

모자보건 정책 강화 성과... 전년도 출생아 467명 기록

진천군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출생아 수 467명을 기록하며 충북 도내 3위, 군 단위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러한 성과가 임신·출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먼저, 군은 지난해 가입력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부터 임신, 출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군 여성의 임신 준비를 돕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과 이용권 유효 기간을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총 339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았다.

특히,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진정어머니나 함께 거주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말 기준 276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422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군은 가임기 여성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임신부 출산 건강 증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지역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정류 및 식용류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기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보은군, 1인당 60만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1, 2차로 나눠 분할 지급 예정... 경제 활력 기대 괴산·단양·영동 등 도내 타 시·군도 지원금

보은군은 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금 예산 192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군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935억원 규모로 적립·운용하고 있어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

담이 크지 않아 기존 군정 운영이나 필수 사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재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원(1차 30만원, 2차 3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에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

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차는 4~5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군은 미리 신청서를 배부해 지원금 신청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게 된다. 또한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충북 도내 다른 시·군도 민생안정 지원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계획 중으로 단양군은 1인당 20만원, 괴산·영동군은 5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해당 시·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마련된 정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 불편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청년 취업 준비부터 전단계 지원

자격증 응시료·면접수당 등... 매월 신청 가능

영동군은 12일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장기근속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2026년 영동군 청년 단계별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지원 등 단계별 지원책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1~12월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먼저 취업 준비 단계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자

격시험이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 접수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구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면접수당도 지급한다. 영동군 소재 사업장 면접에 응시한 청년에게 면접 1회당 5만원, 1인당 최대 6회(30만원)까지 지원한다. 워크넷, 민간 취업포털, 지역신문 등 공식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만 인정된다.

취업 이후에는 취업성공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영동군 소재 사업장에 취업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뒤 4개월 이상 재직하면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근속수당도 지원한다. 영동군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한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장기 재직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신청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youngsu4786@korea.kr)로 진행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3-740-3732)으로 하면 된다.

다만 주 20시간 미만 일자리,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직계가족이 대표인 사업장, 유흥·도박업소,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공공기관·학교·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과금이 부과된다.

괴산군, 취약계층 가정 찾아가는 '수리수리 사업' 3월 시행

보일러·전기등 노후 주거 무상 수리... 최대 40만원

괴산군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가 노후 주거 설비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수리수리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 불편 해소와 함께 화재·누전·가스 사고 같은 안전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리수리 사업은 보일러,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 설비의 고장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인 '출동반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개선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연간 최대 40만원 범위에서 무상 지원이 가능하며 단순히 소모품 교체를 넘어 필요한 설비 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12명의 출동반장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현장 지원을 맡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다.

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110여 가구의 주거 수리 지원을 완료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3~12월까지 각 읍·면 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마을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리수리 사업은 단순한 수리 지원을 넘어 군



괴산군의 출동반장이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은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AI스피커 위기 상황 홀몸 어르신 구조

음성 한마디로 119연결 고독사 예방 효과 입증

옥천군은 5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설치한 AI스피커가 위기 상황에 놓인 홀몸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며, 지역 돌봄 안전망으로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 옥천군에서 홀로 거주하던 한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겪던 중, 자택에 설치된 AI스피커를 향해 "119 불러줘"라고 음성으로 요청했다.

AI스피커는 해당 음성을 인식해 즉시 119 상황실과 연결됐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어르신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치료를 마친 어르신은 이후 옥천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혼자 있다 큰일 날 뻔했는데 군에서 설치해 준 AI스피커 덕분에 살았다"며 감

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돌봄 기기가 위기 상황에서 홀몸 어르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음성 한마디만으로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해 신체 활동이 제한된 고령층에게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스마트 돌봄 AI스피커 운영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병원 동행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홈케어 및 정리수납서비스, 우유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 우편을 활용한 안부살필 우편 서비스 등이 있다.

황규철 군수는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 계층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총



옥천군이 설치한 AI스피커.

심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돌봄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증평군, 전입자·청년 주거 지원 강화

전입축하금·청년 월세지원 10만원씩 확대

증평군은 5일 인구 유입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입축하금과 청년 월세 지원금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전입축하금은 전입자 1인당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인상된 전입축하금은 2026년 1

월 1일 이후 증평군으로 전입한 세대부터 적용된다.

청년 월세 지원금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1인 미혼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가운데 입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기존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이 적용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입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청년과 신규 전입자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군, 방학 돌봄 아동 '급식비 지원'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아동 정서 안정 도모

옥천군은 방학 기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에 나서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 대

상 급식비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제안을 적극 반영해 추진되며,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한다. 이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학교별 운영 계획에 따라 급식 또는 도시락 제공에 소요되는 급

식비를 군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방학 기간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급식비 지원을 계기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대리 (T.043-234-0840~2)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본격 추진

방과 후 돌봄시설 360개소 운영... 취약계층 무료 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초등학생(6~12세)을 맡길 수 있다. 참여 기관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 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까지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KB금융도 참여한다. 복지부와 KB금융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

권리보장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연장 운영 기관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밤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센터장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AI로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행정절차 간소화... 사전 예방 형태 전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탈(脫)신청주의를 추진하고자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탈(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AI를 활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체계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형태로 전환한다는 목표

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정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유재연 사회분과장을 비롯해 사회분과 위원과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

성과 함께 보면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 분야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장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재연 사회분과장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AI 기반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등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에 대한 신체 수술 등에 대한 신청과 동의할 수 있으며,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

검 방법과 절차, 후속조치 등을 구체화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상담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함께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전문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 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에 장애아동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주된 소득원인도 기초급여(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

(2026년 기준)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 급여	부가 급여	합계	기초 급여	부가 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34만 9700원	9만 원	43만 9700원	43만 9700원	4만 9700원	48만 97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사)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기초연금(84만 9700원)으로 전환	-	-
주요급여수급자 차상위	34만 9700원	8만 원	42만 9700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차상위초과	34만 9700원	3만 원	37만 9700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중전 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중전 장애인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이용자 56.8% '도전행동 완화'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현황.

이용자 정서적 안정·보호자 개인시간 확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와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타해)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648명)와 보호자(530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후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76.6%)할 수 있었고, 돌봄 스트레스 완화(72.6%)와 정서적 안정(54.2%)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 안정(68.9%)과 도전행동 완화(56.8%) 및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33.4%)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여가활동'을 가장 확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서

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만 1086원으로 높이고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1월 말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서비스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종중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 전화) 043-234-0840

충북지역개발회, 복지 강화 1천만원 후원

지역 중증지적장애인 대상 2020년부터 '꾸준한 나눔'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회장 오선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사회복지법인 마당에 기탁된 10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나눔 의지를 담았다.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는 사회복지법인 마당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달달 누적 후원금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후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회복지법인 마당은 중증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으로, 현재 청주시에 위치한 '다운빌'과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청천재활원' 등 두 곳의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지적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마당 관계자는 "매년 변함없이 후원을 이어주시는 충북지역개발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후원금은 다운빌과 청천재

활원에 거주하는 중증지적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새해를 맞아 더욱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장애인 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연대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지역개발회의 꾸준한 나눔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편, 충북지역개발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공익 활동과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오선교)에 희망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혈액원 임직원 "따뜻한 새해 보내세요"

충북적십자사에 희망성금 기탁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는 9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원장 임근민) 임직원 일

동으로부터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5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새해를 맞아 충북혈액원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충북혈액원은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 활동 뿐만 아니라, 이번

희망성금 기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적극 실천했다.

임근민 원장은 "직원들이 실시 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올 한 해도 충북혈액원은 생명 보호와 이웃 사랑 실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현봉 회장은 "현장에서 생명 나눔을 위해 헌신하는 혈액원 임직원들이 희망성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해주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탁해주시는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충북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 지원 본격화

전문성 향상·복지 증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장희)은 13일 충청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신경희)를 통해 2026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청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2025년 9월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이 지역 돌봄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의 참여형 사업을 넘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지원형 사업'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격 향상 프로그램, 신체·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 복지 지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가치 확산, 돌봄 생태계 내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2026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심신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심리·노무 상담사업, 근로 가이드 배부, 현장 간담회,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요원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돌봄 인력이 전문직 종사자로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충청북도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충주문화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주문화시니어클럽, LH아파트와 업무협약

7개 단지 노인복지 협력 '놀이터 안전도우미' 운영

충주문화시니어클럽(관장 박보경)은 13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임대아파트 7개 단지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충주연수6단지, 충주연수후면시야7단지, 충주연수2단지, 충주호암더휴NHF7단지, 충주호암행복주택, 충주호암1단지, 충주첨단행복주택 등 총 7개 단지가 참여했다.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주

거복지 향상,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충주문화시니어클럽은 LH임대아파트 7개 단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놀이터 안전도우미' 사업을 운영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놀이터 순찰과 위험요소 사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및 관리 활동 등을 수행하며, 입주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입주주민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연계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

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보경 관장은 "이번 협약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와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문화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인 '자원순환단' 활동을 통해 충주시로부터 지원 받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1000장을 LH임대아파트 7개 단지에 전달하며, 환경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앞장섰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다양한 여가 즐겨요"

'2026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종분)은 6일 복지관 2층 속리산홀에서 노년사회화교육 및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 강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프로그램 개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 기관장 인사말, 군수 격려사, 프로그램 이용자 선서, 노인·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연간 일정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노년사회화교육은 올해 노인 38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반과 라인댄스(기초)를 포함한 총 32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의 문화·여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악기 밴드부 등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3개의 강좌도 새롭게 개설됐다.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장애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래반을 비롯한 다양한 여가·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며, 시각·청각·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분 관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이번 개강식이 배움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이용자분들께 자신감과 즐거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장애인복지관 '일하는 밥퍼' 추진

단양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경섭)은 지난 12일부터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사회생활

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하루 최대 20명씩 연인원 48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주 5일 이내에 하루 3시간씩 농산물 포장 등의 일을 하고 1만 5000원(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재정경제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은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이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전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되어 국민의 복지 기준선이 높아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을 최초로 넘어 취약 계층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보건요,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 등 국민이 복지를 넘어 의료·돌봄까지 누리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한다.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행

2026년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하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운영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 징후가 보이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2025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 150여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노동부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으로 단축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휴주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교육부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정부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비용(공립 2만원, 사립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별·분

기준중위소득 인상·통합돌봄 도입... 복지체계 강화 교육비 경감·돌봄확대·노동환경 개선 등 동시 추진

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6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학생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 간 연계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층적 어려움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또한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은둔내 초등돌봄 돌입

2026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학생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하여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한다.

그간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초등돌봄을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돌봄·교육 체제인 '은둔내 초등돌봄'으로 보완·발전시켜, 더욱 질 높은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충분히 제공되지 어려웠던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이 높아져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시간당 1500원이었던 영아돌봄수당을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을 신설(시간당 1000원)하는 등 아이돌봄의 처우를 개선했다.

또한,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새로 시행된다.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일정 기준을 갖춘 뒤 시·군·구에 자율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월 5~10만원에서 월 10만원, 학용품비를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등 피해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2025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개선된 삭제지원시스템과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으로 지원 효과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지원지원수당 신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학업, 진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주거·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제선진지능인(추정자 포함)에게 진단검사비 30만원(1인당)을 신규 지원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을 326호에서 346호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을 1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청소년복지지원(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시설 최소이용기간(2년) 없이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LH공공임대주택 계약자를 위한 입주지원금, 임대보증금, 생활안정 패키지, 주택청약자축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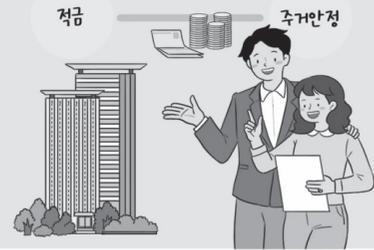
(출처: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신설

시행일: 2026년 6월

- 2026년부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으며,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일반형-6%, 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시행일: 2026년 1월

- 상시근로자 수 50인~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중증남성 35만원 / 중증여성 45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스포츠강화 프로그램 신설

시행일: 2026년 2월

- 2026년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강화 사업이 신설됩니다.
- 지역별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공공체육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자치센터·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생활권 시설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모두의 카드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 2026년부터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100% 환급됩니다.
- 모두의 카드(정책카드)를 도입해 기존 K-패스 이용자도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하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신년사

김영환 충청복지지사

“맞춤형 복지체계 더 촘촘하게”

‘일하는 밥퍼’ 확대 일자리 창출
그림책정원 조성 등 ‘문화의 도시’로
도민과 소통 통해 민생 규제 개선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해가 시작되는 새해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은 충
북이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준비하는 때
우 중요한 해입니다.

충북도는 2026년 대한민국 한가운데
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의미를 찾는 혁신을
통해, 온 도민과 함께 꿈을 완성해 나가
는 길을 열겠다는 뜻을 담아 ‘한·가·
온·길’을 신년화두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미래를 밝히며
앞서 나가기 위해 복지·산업·문화·
환경·안전·균형발전 등 도정 전 분야
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도민과 함
께 정책을 점검하며 끝까지 완성해 나가
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일하는 복지’를 더욱 두
텁게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삶의 주체로서 안
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
습니다.

청년 영상제작자 콘텐츠와 대학생 웹
툰 스토리 제작 등 영상자서전 사업을 활
성화하고 장애인에 역량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를 촘촘히 확대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30만 명, 도시농부 40만
명 규모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력
보유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하는 기쁨’
사업도 600명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도 일일 참여 인원을
5000명까지 확대해 지역 곳곳에 따뜻한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비 후불제’ 지원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료·요양 통
합돌봄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곳을 빈틈없이 지원하겠
습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체
육·관광이 살아 숨 쉬는 충북을 만들겠
습니다.

충북 어디서나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감성과 휴식, 창
조적 에너지가 살아 숨 쉬도록 하겠습니
다.

충북아트센터와 그림책정원 1937을
비롯해 문화예술 복합시설 조성, 관광공
사 설립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충북을 문
화가 있는 도시이자 머무르고 싶은 지역,
다시 찾고 싶은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중원역사문화권의 깊은 뿌리를 되살
리고 청남대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충북도립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돔
구장 등 도민 체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과
스포츠가 조화를 이루는 충북만의 매력



으로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어가겠
습니다.

셋째,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선
순환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수당을 바
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왔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가족친화 인증을 확대
하고 지방 소멸 대응 예산 616억원을 투
입하는 한편, AI바이오영재학교 개교 기
반 조성을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 인재 양성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자녀 특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K-유학생 2만 명 유치로 통해 인구 감
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며 교육하기 좋은 충
북, 청년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을 완
성하겠습니다. SNS 기반 정책 소통을 강
화하고, 민생 규제 개선과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을 통해 도민 참여의 폭을 넓혀겠습니다.

AI 디지털배움터와 오송 국제 K-부
터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민의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도
청사 기능 개선으로 더 편리하고 열린 행
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귀 기울
이며, 충북의 모든 변화가 도민과 함께
시작되고 도민과 함께 완성되도록 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충북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대로 창
조·도전·실행을 핵심으로 하는 ‘이노
베이트브 프락시스(Innovative Praxis,
혁신적 실천)’의 철학 아래 더 담대한 혁신
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다
르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신속
한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정을 통해 민생
안정과 도민 행복을 반드시 실현하겠습
니다.

2026년 병오년, 우리는 혁신의 결실
을 완성하고 충북 미래 100년을 향한 기
틀을 더욱 굳건히 다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충청북도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행복한 삶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
일의 충북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로 혁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더 큰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골고루 누리는 복지 펼칠 것”

일자리·교육 등 현실 대안 마련
먹고사는 문제 중요... 역량 집중
소외이웃 돌보며 삶의 질 향상 최선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
고, 충청북도를 의연하게 지켜 주신 도
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회는 도민 여러
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
역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복지 확
대, 지역 현안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일 잘하는 의
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새해가 특별하지만, 2026년 우
리 충북은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만들
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충청북
도의회는 올해도 도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먼저, 초심을 잃지 않는 충청북도의
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35명 도의원은 4년 전 본회의
장에 들어서던 첫 마음을 다시 새기며
열정과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백 리
를 가려는 사람이 구슬 리를 반으로 여
긴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성심을 다해 제12대 충청
북도의회를 품격 있게 마무리하겠습니
다.

그동안 차곡차곡 풀은 지역 과제
와 민생 현안들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조례와 정책으로 다듬어 충북의 구
석구석까지 회복과 성장의 온기를 불
어넣겠습니다.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
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
과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
습니다.

둘째, 더 낮은 자세로 ‘이청득심(以聽
得心)’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는
경청입니다. 민의를 소중히 여기는 우
리 충청북도의회는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누구도 소외되
지 않는 따뜻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깨어 있는 눈과 귀가 되어 한층
비상한 각오로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도민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
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정확히 짚어내
고 예산과 정책 과정을 꼼꼼히 살펴 역
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지역
현안은 치열하게 논의하고 도민의 이
익을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
겠습니다.

셋째, ‘여민유지(與民由志)’를 실천하
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가
겠습니다. 충북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
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
리, 경제, 복지, 교육, 환경 등에서 내
실 있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
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민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
제를 해결하는 일에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나아가 충북의 새로
운 성장, 모두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이
끌고, 그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복지를
더욱 탄탄히 해 새로운 민생의 길을 열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내일을 든든히
이끄는 충북의 마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바람과 기대를 헤아려 문제
를 해결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
직하면서도 열정적인 동반자로서 여
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당당한 현
실을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
기로 삼아 도민과 함께 새 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민
생경제 회복 등 충북의 숙원사업을 앞
장서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혁
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여
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
웃을 돌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지금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
는 것은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
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
도 도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믿음과 저력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며 오늘의 작은 실
천들이 내일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
입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가
강을 건너고 절벽을 뛰어넘듯 우리 모
두 병오년(丙午年) 새해, 새 희망과 용
기를 안고 힘차게 달려보길 소망합니
다.

충청북도의회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충북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가
겠습니다. 충북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
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
리, 경제, 복지, 교육, 환경 등에서 내
실 있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
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민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
제를 해결하는 일에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나아가 충북의 새로
운 성장, 모두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이
끌고, 그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복지를
더욱 탄탄히 해 새로운 민생의 길을 열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내일을 든든히
이끄는 충북의 마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바람과 기대를 헤아려 문제
를 해결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
직하면서도 열정적인 동반자로서 여
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당당한 현
실을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
기로 삼아 도민과 함께 새 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민
생경제 회복 등 충북의 숙원사업을 앞
장서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혁
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여
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
웃을 돌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지금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
는 것은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
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
도 도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믿음과 저력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며 오늘의 작은 실
천들이 내일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
입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가
강을 건너고 절벽을 뛰어넘듯 우리 모
두 병오년(丙午年) 새해, 새 희망과 용
기를 안고 힘차게 달려보길 소망합니
다.

충청북도의회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충북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유응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지역복지 위해 함께 힘 모아주길”

충북 푸드뱅크 모범사례 자리매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강사 위촉
도내 사회복지협의회 소통·협력

존경하는 충북 사회복지 가족 여
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미래에 대
한 희망의 빛을 그리워하고, 더 나은
내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뜻깊은 해
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충북 사회복지 현장에
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병오년
은 불과 말이 결합한 이른바 ‘붉은 말
띠’의 해로, 밝고 활발하며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기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새
로운 도약과 변화의 에너지를 품고 있
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의 기운을 담고 있는 붉은 말은
밝음과 확산, 열정과 역동성을 의미하
며, 그 성격 또한 활발하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생동감을 지니고 있습니
다. 이는 오늘날 사회복지 현상이 나아
가야 할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이
러한 힘찬 기운을 듬뿍 받아, 충북 사회
복지가 나아갈 길마다 따뜻하고 활기
찬 붉은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사회복지
협의회도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
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합
니다.

먼저, 새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
행되는 ‘그냥드림사업’이 현재 도내 5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자리 잡은
광역푸드뱅크 사업은 충북의 푸드 유
동체계를 한층 더 튼튼하게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협
의회에서 수시로 벤치마킹과 견학을
위해 방문하고 있어, 충북이 푸드뱅크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
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사진을 지
역의 우수 전문가 중심으로 신규 위촉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
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서
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출당터 사업도
새해에 재지정을 받아, 앞으로도 충북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
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
공 부문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는 협의회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온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
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해에는 충북 지역 내 사회복지
지협의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자
체인 중평군에서도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재건을 준비 중
인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조속히 재
설립되어 지역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부
러 운영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 사
회복지협의회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
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충
북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긴밀
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
겠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충북사회복지대회의
개최는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
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도와 와인으
로 유명한 영동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에 충북의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유
관기관이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 상
호 협력하고 손잡는 새로운 길을 걷는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충북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의
상호 협조와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
실히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
중하며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 사회
복지는 더욱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충북 사회복지계의 모든
영역에서 추진하시는 복지서비스 사업
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삶에도 기쁨과 보람이 가득
하고, 마음속에 품은 새해의 소망들이
하나하나 값진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복 많
이 받으시고, 충북의 모든 사회복지기
관과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평안, 그리고 따뜻한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
공 부문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는 협의회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온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
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해에는 충북 지역 내 사회복지
지협의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자
체인 중평군에서도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재건을 준비 중
인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조속히 재
설립되어 지역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부
러 운영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 사
회복지협의회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
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충
북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긴밀
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
겠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충북사회복지대회의
개최는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
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도와 와인으
로 유명한 영동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에 충북의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유
관기관이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 상
호 협력하고 손잡는 새로운 길을 걷는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충북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의
상호 협조와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
실히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
중하며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 사회
복지는 더욱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충북 사회복지계의 모든
영역에서 추진하시는 복지서비스 사업
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삶에도 기쁨과 보람이 가득
하고, 마음속에 품은 새해의 소망들이
하나하나 값진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복 많
이 받으시고, 충북의 모든 사회복지기
관과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평안, 그리고 따뜻한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2층짜리 주택 중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 A가 말도 없이 주택을 팔아버렸습니다. 새 집주인 B는 A로부터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

A.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입주하여 실제로 살고 있다면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를 받습니...

임차인의 대항력

은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즉, 차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었다면 경매 등으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집을 구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감과 동시에 동·읍·면사무소에 찾아가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선순위 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해 임차목적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는데 이는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

제를 받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동정

- 굿네이버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 관장 백순규 / 1월 1일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 본부장 주경식 / 1월 1일자
■ 충북가족센터협의회 > 회장 심재석 / 1월 1일자
■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회장 장선애 / 2월 1일자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북지회 > 지회장 김경섭 / 1월 23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사실·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동정(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사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꿈지락봉사단, 실과 바늘로 전하는 따뜻한 나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꿈지락봉사단(이하 봉사단)'은 2024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뽕떡볶이, 삼베수세미 등 실과 바늘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매년 기부 물품을 선정하고, 직접 제작한 물품을 연말에 보내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제작 기법을 배우는 사전교육을 진행하며,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여가

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구멍

이창신 www.bokmani.com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억지로 참지 않아도 괜찮아...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 12월 31일(상시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도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T. 043-716-2168~9)

[청소년그루터기재단, 2026년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꿈꾸는 그루터기 '꿈터' 모집]

- 사업내용: 인테리어(가구지원, 도배, 장판 등),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해충 퇴치
■ 지원대상
- 퇴소 7년 이내 자립준비청소년(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립준비청소년, 1인 가구 청소년에 한해 신청 가능, 전세, 월세, 등 계약기간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청소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노후화되어 환경개선이 필요한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 신청: 이메일(tuna925@stump.or.kr)로 2월 8일(일)까지 서류 접수
■ 문의: 청소년그루터기재단(02-6408-2101)

[한국증권금융공익재단, 주거기동통합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퇴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2026년 LH 전세/매입/건설 신규 계약 체결자(단, 소년소녀 가장 제외), 임대조건 상 납부할 임대보증금이 있으며, 보증금을 전액 본인 명의로 납부한 자, 2026년 아동양육시설 퇴소(예정)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지원 및 가전, 가구, 침구 등 자립키트 200만원 지원(단,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 지원불가)
■ 신청: 임대보증금(LH청약플러스 사이트 내 '유스타트' 메뉴 통해 접수), 자립키트(이메일(knacw2@adongbokji.or.kr)제출
■ 문의: 한국아동복지협회(070-5080-5331)

[홀트아동복지회, IBK기업은행-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2026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자격: (공통) 2024~2025년도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구유형) 긴급지원이 필요한 24주 이상의 미혼임산부,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미혼모, 다문화 미혼모자 가정
■ 지원내용: 항목별 합산 가정별 최대 200만원
■ 지원항목: 생계비, 양육비, 의료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 신청방법: (개인)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기관)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참고: love.holt.or.kr

[푸르메재단, 2026 EY한영 장애아동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내용: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최대 250만원
■ 신청기간: 2026. 2. 20.(금) 마감일 자정(24시)까지
■ 신청방법: 기관 담당자가 홈페이지(gwon.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개별신청 불가)
■ 참고: purme.org

[재단법인 한사랑농촌문화재단, 한사랑 농촌사랑 문화자원 공모]

- 지원자격: 공모 내용대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지원내용: 농촌 지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연, 시설 개보수, 환경미화, 편의 물품·시설 확보 활동
■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200만원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사업실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참고: www.myhansarang.org

[중부재단, 2026년 <머무르다: in Jeju> 공모 안내]

- 지원대상: 사회복지 분야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개인·가족·모임,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 지원내용: 제주도 게스트하우스(해나게스트하우스) 숙박 지원 (장소 변경 불가)
■ 지원기간: 2026.2.2.(월)~5.5.(화) 중 희망하는 여행일정
■ 접수기간: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www.jbfoundation.or.kr) 내 온라인 신청

[말발복지재단, 희귀난치질환 및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중위소득 130% 이하의 장애 및 희귀질환 진단 받은 19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수술비, 의료소모품 및 보조기구 구입비 최대 500만원
■ 신청기간: 후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참고: www.miral.org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2.1~2.28
전화번호: 043-234-0840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1~2.28
전화번호: 043-216-3060

▶ 어르신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충주시립노인요양원
활동기간: 2.1~2.28
전화번호: 043-851-3211

▶ 아동 돌봄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오창다함께돌봄센터
활동기간: 2.1~2.28
전화번호: 043-212-3357

▶ 기관 홍보물 제작 및 웹디자인
관리센터: 사단법인 빛 가운데
활동기간: 2.1~2.28
전화번호: 043-212-3021

▶ 말발복지서비스 전달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2.1~2.28
전화번호: 043-743-0095

▶ 병원 내원환자 안내
관리센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활동기간: 2.1~2.28
전화번호: 043-640-8472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
☑ 별도 신청 NO / 소득 기준 NO
* 단, 그날그날 사업 진행 기호카드(뱅크) 소지 거주자만 이용 가능

어떻게 이용하나요?

- ☑ 거주지 푸드마켓(뱅크) 내 '그날그림 코너' 방문 수령
☑ 2번째 이용 시 기본 상담 진행 → 추가 지원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 연계

『그날그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어려움으로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열린 공간(기회), 준비된 물품이 항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일부 물품이 부족할 수 있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